

쇠뒤쥐 (*Sorex minutus gracillimus*)의 정자변태

허진철 · 이정훈 · 손성원

경남대학교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한국산 뿔쥐과(Soricidae), 뒤쥐속(*Sorex*)의 쇠뒤쥐(*Sorex minutus gracillimus*)에 대한 정자변태과정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정자변태과정은 골지기와 두모기를 각각 전·중·후기로, 침체기는 전·후기로, 성숙기와 이탈기는 각각 1단계로 하여 전 과정을 10단계로 나눌 수 있었다.

1) 핵질의 변화는 골지단계에서는 고운 섬유상의 형태에서, 두모기와 침체기를 거치는 동안에 둥근 과립상의 형태를 취하다가 성숙기에는 응축하기 시작하여 이탈기에는 완전히 핵을 형성하였다.

2) 핵의 신장과 더불어 만세트는 침체후기부터 성숙기까지 나타났다.

3) 정자의 편모형성 시기는 골지후기에 생성되기 시작하여 이탈기에 완성되었다.

4) Multivesicular body는 골지전기부터 성숙기까지 나타났는데, 즉 골지기에는 주로 pale multivesicular bodies 관찰되었고, 두모기와 침체기에서는 pale multivesicular bodies와 moderate multivesicular bodies 가 관찰되었으며, 성숙기에서는 dense multivesicular bodies들이 관찰되었다. 특히, 성숙기에는 세포질내에 lysosome도 관찰되었다.